

##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김동기 · 사공은희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차원에서 살펴보고, 양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를 많이 하며,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성적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부분적으로 평가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해, 교제단계에 따른 다양한 개입방안 마련,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을 고려한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행, 교사와 부모에 대한 평가적 지지관련 교육프로그램 실행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학교폭력 피해경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왕성할 때로, 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성숙한 태도를 확립하지 못한 채 경험하는 데이트는 그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Smith, White, & Holland, 2003). 데이트와 같이 상호의존적이며 영향력이 강한 친밀한 관계에서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더 많으며, 이러한 특징이 교제에서 폭력행동을 증가시킨다(Gelles & Straus, 1979).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안귀여루, 2001; 이영숙, 1998; 장희숙·조현각, 2001; Gelles & Straus, 1979).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와 같은 혼전 단계의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것이 훗날 가정폭력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용미, 1999; 김용미·김현옥, 2000; Cate et al., 1982; Makepeace, 1981; Riggs et al., 1990). 데이트 단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로 발전될 경우, 폭력적 상호작용의 습관이 굳어져서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격성향에 초점을 맞추었다(Aizeman & Kally, 1988; Makepeace, 1981; O'Keefe, 1997; Stets & Henderson, 1991). 이에 반해, Lloyd 등은(1989) 언어적·심리적 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전조이기 때문에 언어적·심리적 폭력도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후속연구들에서 실제로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Stets, 1989; Stets & Henderson, 1991).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동인 성적 폭력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훨씬 더 큰 손상과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위의 3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모방함으로써 폭력학습의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다.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부모간의 폭력 목적은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부부싸움에서 서로 폭력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아동은 폭력행동을 사용해도 괜찮은 행동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예정·김득성, 1999). 같은 맥락에서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폭력 환경에 노출된 경험 중 일부분이다. 즉, 초·중·고 시절,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피해자는 폭력의 피해와 사용방법을 익힘으로써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O'Keefe(1997)의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고, Riggs et al.(1990)의 연구에서도 학창시절에 친구에 의한 신체적 폭력 경험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과 유의미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56-57%가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준호·김선애(2000)의 연구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남녀 초·중·고교생 1천 명 중 37.6%가 지난 일년 동안 학교(주변)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초·중·고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이는 한국 대학생들의 많은 수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위험집단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선행연구는 학교폭력의 피해가 아닌 가해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에 초점을 두었다(김예정·김득성, 1999; 서경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차원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련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과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통제 가능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Cohen & McKay, 1984).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물질적, 정서적으

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Vaux, 1988),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bow & Ulman, 1989; 유안진 등, 2003에서 재인용). Litty 등은(1996)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 지각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Magdol 등( 1997)도 21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한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Romans-Clarkson et al., 1990).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탐색적(exploratory)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차원에서 살펴보고, 양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질문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세운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 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질문 2. 사회적 지지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 2.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데이트 폭력 가해

본 연구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낭만적인 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가 서로간의 합의 없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 Scale)와 Shephare & Compbell(1992)의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여 총 17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즉,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 Scale)는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내의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심리적 폭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가지고 보완하였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CTS와 ABI를 함께 보완하여 사용한 연구로는 장희숙·조현각(2001)과 유선영(2000)의 연구가 있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신체적 폭력은 ‘세계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목을 졸랐다’ 등을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되고, 심리적 폭력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상스러운 표현)을 하거나 비난했다’,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했다’,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 등을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성적폭력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하였다’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별 주는 ‘①없음, ②일 년에 두 번, ③한 달에 한두 번, ④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⑤거의 매일’로서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 각각의 차원과 문항 수, 신뢰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데이트 폭력 각 차원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수	하위차원	문항 수	Cronbach's alpha		출처
데이트 폭력	신체적	8	.849	.792	Straus(1979)
	심리적	8	.768		Shephare &
	성적	1	.1)		Compbell(1992)

## 2) 학교폭력 피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신체적 폭력, 정신적 괴롭힘 및 위협이나 협박,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정의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척도는 Olweus(199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Olweus(1991)의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2001)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총 5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는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그냥 맞거나 폭행당한 적이 있다’,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위협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하여 3문항으로, 심리적 폭력피해경험은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한 욕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를 포함하여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①없음, ②일 년에 두 번, ③한 달에 한두 번, ④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⑤거의 매일’로서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의 문항 수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2〉과 같다.

〈표2〉 학교폭력 피해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하위차원	문항 수	Cronbach's alpha		출처
학교 폭력 피해	신체적	3	.643 <sup>2)</sup>	.759	Olweus(1991, 1993)
	심리적	2	.616		안정만(2001)

1) 성적 차원의 데이트폭력 가해의 경우, 단일 문항이므로 신뢰도를 산출할 수 없음.

###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9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보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뉜다.<sup>3)</sup> 정서적 지지는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을 포함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고, 평가적 지지는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등을 포함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물질적 지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요한 것들을 빌려 줄 것이다’ 등을 포함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범주는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서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각각의 차원과 문항 수, 신뢰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사회적 지지 각 차원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하위차원	문항 수	Cronbach's alpha	출처
사회적 지지	정서적	3	.836	박지원(1985)
	평가적	3	.684	
	물질적	3	.800	

- 2) 내적 일관성은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구성문항들이 서로 유사한 정도를 말하며, 각 항목과 전체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의 기준은 보통 Cronbach's alpha 값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되어야 하며 사회과학에서 .70 이상은 확보되는 것이 좋다 (이익섭·이윤로, 2004).
- 3) 요즈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정보적 지지를 제외하였음.

### 3.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서 성인인 미혼남녀인 대학생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 한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제가 활발하여 데이트 폭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Arias, Samios, & O'Leary, 1987). 현실적으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하는 것이 힘들므로,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대학이 분포하고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조사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해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즉,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남녀공학인 종합대학의 목록을 작성 한 후, 매 6번째 대학을 선택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sup>4)</sup>. 그리고 연령이나 전공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정된 대학에서 1-2개의 교양과목을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2일이며,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4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데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475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버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거친 후,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 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남녀공학인 종합대학의 수는 총 36개로서 각 대학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매 6번째 대학으로 총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05명(64.5%), 여성 168명(35.5%)으로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2세 이상~24세 이하 165명(35.0%), 19세 이상~21세 이하 161명(34.2%), 25세 이상~27세 이하 133명(28.2%) 순으로 나타났다(평균연령=22.9세). 경제적 수준은 3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164명(35.0%),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12명(23.9%) 순으로 나타났고, 300만 원 이상이 전체의 50% 정도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제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 212명(44.6%), 3년 이상 97명(20.4%)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교제기간=19.2개월). 마지막으로 종교는 무교 186명(39.4%) 기독교 148명(31.4%), 천주교 71명(15.0%) 순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표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n=473)	남성	305(64.5)	여성	168(35.5)
연령 (n=471)	19세 이상 -	161(34.2)	22세 이상 -	165(35.0)
	21세 이하		24세 이하	
	25세 이상 -	133(28.2)	28세 이상 -	12(2.5)
	27세 이하		30세 이하	
경제적 수준 (n=468)	50만원 미만	27(5.8)	50만원 이상 -	10(2.1)
	100만원 이상 -	47(10.0)	100만원 미만	112(23.9)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164(35.0)	300만원 미만	108(23.1)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교제기간 (n=475)	6개월 미만	83(17.5)	6개월 이상 -	83(17.5)
	1년 이상 -	212(44.6)	1년 미만	97(20.4)
	3년 미만		3년 이상	

종교 (n=472)	기독교	148(31.4)	불교	61(12.9)
	천주교	71(15.0)	무교	186(39.4)
	기타	6(1.3)		

## 2. 주요변수들의 특성

학교폭력 피해경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사회적 지지 등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조사대상자 중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총 474명 중 236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약 절반 정도의 조사대상자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9명(33.6%), 심리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80명(38.2%)으로 나타나, 심리적 폭력을 좀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실태(n=474)

피해 유형	발생빈도(명)	발생률(%)
신체적 폭력	159	33.6
심리적 폭력	180	38.2
전체 학교폭력 피해	236	49.8

### 2)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조사대상자 중 어떠한 형태로든 한 번 이상의 데이트 폭력 가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총 474명 중 348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하위차원별로는 심리적 폭력이 346명(7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55명(11.6%), 성적 폭력 9명(1.9%) 순으로 나타났다(<표6>참조).

〈표6〉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실태(n=474)

가해 유형	발생빈도(명)	발생률(%)
신체적 폭력	55	11.6
심리적 폭력	346	72.6
성적 폭력	9	1.9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348	73.3

### 3) 사회적 지지

4점 척도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조사대상자의 정서적 지지가 ( $M=3.2075$ ,  $S.D=.5401$ )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 ( $M=3.1287$ ,  $S.D=.4619$ ), 평가적 지지( $M=3.0640$ ,  $S.D=.4607$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도 평균이 3.1336( $S.D=.4241$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표7〉참조).

〈표7〉 사회적 지지 실태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3.2075	0.5401
평가적 지지	3.0640	0.4607
물질적 지지	3.1287	0.4619
전체 사회적 지지	3.1336	0.4241

## 3.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 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경제적 수준, 교제기간, 종교유무를 통제변수로 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통제변수 중 성별과 종교는 질적 변수이기 때문에 양적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가변수화(dummy variable) 하였다<sup>5)</sup>.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variance

5)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1, 여성=0,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inflation factor)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3이하<sup>6)</sup>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신체적 폭력

통제변수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이 신체적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7.7%( $R^2 = .077$ )로 나타났다<sup>7)</sup>. 그리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인 성별( $\beta = -.178$ )과 교제기간( $\beta = .113$ )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독립변수 중 심리적 차원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168$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에서 신체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신체적 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표8>참조).

### 2) 심리적 폭력

통제변수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이 심리적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11.1%( $R^2 = .111$ )로 나타났다<sup>8)</sup>. 그리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인 성별( $\beta = -.184$ )과 교제기간( $\beta = .191$ )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독립변수 중 심리적 차원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208$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에서 심리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 심리

6)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10 이상일 때는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김두섭·강남준, 2000).

7) 통제변수만 회귀식에 포함 시켰을 때의  $R^2$ 는 3.1%인 반면, 독립변수 투입 시 4.6%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7.7%가 되었으며,  $R^2$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1$ ).

8) 통제변수만 회귀식에 포함 시켰을 때의  $R^2$ 는 5.8%인 반면, 독립변수 투입 시 5.3%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11.1%가 되었으며,  $R^2$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1$ ).

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심리적 차원에서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표8>참조).

### 3) 성적폭력

통제변수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이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4.8%( $R^2 = .048$ )로 나타났다.<sup>9)</sup> 그리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인 교제기간( $\beta = .112$ )과 독립변수 중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207$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성적차원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표8>참조).

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 심리적 차원에서의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중고 시절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폭력을 많이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8>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성적차원
		$\beta$	$\beta$	$\beta$
통제 변수	성별	<b>-.178***</b>	<b>-.184***</b>	.020
	경제적 수준	.010	-.026	-.045
	종교 유무	.076	-.021	-.017
	교제기간	<b>.113*</b>	<b>.191***</b>	<b>.112*</b>
독립 변수	신체적 폭력	.078	.046	-.088

9) 통제변수만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의  $R^2$ 는 1.7%인 반면, 독립변수 투입 시 3.1%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4.8%가 되었으며,  $R^2$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1$ ).

	피해경험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	.168**	.208***
Constant(비 표준화된 회귀계수)		1.042***	1.450***
R <sup>2</sup>		0.077	.111
F		6.125***	9.158***

\* p<.05, \*\* p<.01, \*\*\* p<.001

#### 4.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0)</sup>. 본 연구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a + \beta_1 X + \beta_2 Z + \beta_3 X*Z + e(\text{오차 항})$$

(Y = 데이트폭력 가해경험, X = 학교폭력 피해경험, Z = 사회적 지지, X \* Z = 상호작용 항)

또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살펴본 결과, VIF 값이 3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 1) 신체적 폭력

통제변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데이트 폭력의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15.9%(R<sup>2</sup>=.159)로 나타났다<sup>11)</sup>.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 변수인 성별( $\beta = -.191$ )과 교제기간( $\beta = .079$ )이, 독립변수 중 심

- 10) 상호작용 항을 만드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각각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에, 상호작용 항을 만들었음.
- 11) 상호작용 항 투입 전 회귀식의 R<sup>2</sup>는 8.6%인 반면, 상호작용 항 투입 시 7.3%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15.9%가 되었으며, R<sup>2</sup>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1).

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170$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제기간의 경우 marginal한 수준에서( $p < .1$ )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 중 신체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평가적 지지( $\beta = -.132$ )와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경험\*평가적 지지( $\beta = -.24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적 학교폭력 피해경험\*평가적 지지는 marginal한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의  $\beta$  부호가 음의 부호(-)이므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대상자가 신체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다른 하위차원인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참조).

## 2) 심리적 폭력

통제변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데이트 폭력의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16.3%( $R^2 = .163$ )로 나타났다<sup>12)</sup>.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 변수인 성별( $\beta = -.205$ )과 교제기간( $\beta = .166$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독립변수 중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218$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 $\beta = -.176$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평가적 지지가 독립변수로서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위로부터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심리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인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평가적 지지( $\beta = -.172$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항의  $\beta$  부호가 음의 부호(-)이므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

12) 상호작용 항 투입 전 회귀식의  $R^2$ 는 13.3%인 반면, 상호작용 항 투입 시 3%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16.3%가 되었으며,  $R^2$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5$ ).

단에서 심리적으로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대상자가 심리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다른 하위차원인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참조).

### 3) 성적폭력

통제변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데이트 폭력의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에 대한 총 설명력은 7.0%( $R^2 = .070$ )로 나타났다<sup>13)</sup>.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인 교제기간( $\beta = .09$ )와 독립변수 중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197$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제기간은 marginal한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성적차원의 데이트폭력 가해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종속변수가 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경우,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경험\*평가적 지지를 중심으로, 회귀식과 그래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절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 = 1.470 + 0.241 * \text{심리적 학교폭력 피해} - 0.162 * \text{평가적 지지} - 0.402 * \text{심리적 학교폭력 피해} * \text{평가적 지지}^{14)}$$

위의 조절회귀 식으로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 평가적 지지의 수준을 평가적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  S.D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sup>15)</sup>. 또한 본 연

13) 상호작용 항 투입 전 회귀식의  $R^2$ 는 4.9%인 반면, 상호작용 항 투입 시 2.1%가 늘어나 총 설명력은 7.0%가 되었지만,  $R^2$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14) 오차 항(error term)은 생략하며, 회귀식의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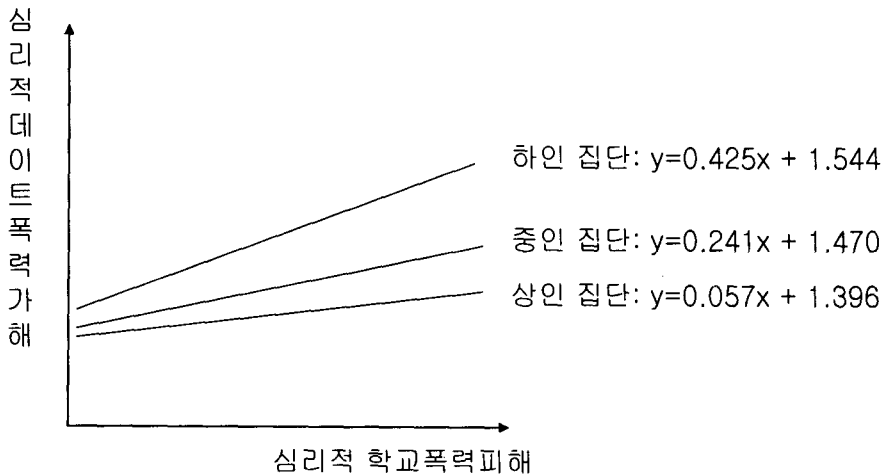
구의 경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각각 평균 중심화했기 때문에, 평가적 지지의 평균은 '0'이며, 표준편차(S.D)는 0.46이다. 이를 통해 3개의 조절회귀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적 지지가 상(上)인 집단의 경우,  $y = 0.057 \cdot X + 1.396$

둘째, 평가적 지지가 중(中)인 집단의 경우,  $y = 0.241 \cdot X + 1.470$

셋째, 평가적 지지가 하(下)인 집단의 경우,  $y = 0.425 \cdot X + 1.544$

위의 세 개의 조절회귀식을 그래프로 작성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평가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위의 <그림1>에서 보이듯이, 평가적 지지의 수준이 상인 집단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고, 하인 집단이 가장 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적 지지가 상인 집단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평가적 지지가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와 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15)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조절변수의 수준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 작성을 위해, 편의상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  S.D 3집단으로 구분한다(홍세희, 2007).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9>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구분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성적 차원
		$\beta$	$\beta$	$\beta$
통제 변수	성별	<b>-.191***</b>	<b>-.205***</b>	.013
	경제적 수준	.006	-.027	-.048
	종교유무	.068	-.014	-.019
	교제기간	<b>.079#</b>	<b>.166***</b>	<b>.090#</b>
독립 변수 · 조절 변수 · 상호 작용항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A)	.039	.014	-.056
	심리적 폭력피해 경험(B)	<b>.170**</b>	<b>.218***</b>	<b>.197***</b>
	정서적 지지(X)	.005	.007	.008
	평가적 지지(Y)	-.100	<b>-.176**</b>	-.029
	물질적 지지(Z)	.025	.067	-.024
	A × X	.019	.042	.079
	A × Y	<b>-.132#</b>	-.038	-.122
	A × Z	.078	.069	.026
	B × X	.032	.004	-.024
	B × Y	<b>-.241***</b>	<b>-.172*</b>	-.087
	B × Z	.044	.029	.031
Constant(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1.053***</b>	<b>1.470***</b>	<b>1.050***</b>
R <sup>2</sup>		0.159	0.163	.070
F		<b>5.433***</b>	<b>5.623***</b>	<b>2.172**</b>

# p<.1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차원에서 살펴보고, 양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경우,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폭력의 경우, 교제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서경현, 2002; Archer, 2000; Foshee et al., 1996; Molitor & Tolman, 1998), 교제기간이 길수록(Billingham, 1987; Neufeld et al., 1991; Roscoe & Kelsey, 1986) 데이트에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여성일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은 본 연구가 데이트 폭력 가해를 빈도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강도를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초중고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평가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심리적 학교폭력이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 가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가적 지지가 심리적 학교폭력과 성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는 조절변수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분

적으로 Magdol et al.(1997)와 일치한다. 또한, 평가적 지지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에 독립변수로서도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평가적 지지가 낮은 사람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심리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데이트폭력 가해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예정·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은 교제기간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며 비교적 진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제기간에 따른 관계의 진밀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교제단계에 따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안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적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심리적으로 초중고 시절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준다. 즉, 위협, 협박, 폭언 및 심한 욕설과 같은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이성교제나 또는 결혼관계에서까지도 폭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개입이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서 이루어진 현재 상황에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향후 초중고생들 중 신체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 및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평가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 즉 친밀한 집단의 평가적 지지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사회 환경은 성인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에 제한된 환경에서 지지를 갖는다. Furman & Buhrmester(198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가족, 친구, 교사를 제시했다. 따라서 청소년

기에 있어서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교사와 부모의 평가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부모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고 폭력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태도,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감정표현, 대인간 갈등관리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공격성과 타협하지 않는 민감성, 분노와 좌절 감정의 이해와 통제, 대인간 갈등에서 타협과 양보,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원만한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을 빈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강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빈도와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체적인 피해 및 가해 경험의 각 지수를 만들어 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데이트 폭력 가해유형에 있어서 성적폭력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성적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인식을 상정하여 물리적인 강제(키스/포옹 등)를 포함하는 성적폭력 가해에 대한 추가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중첩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함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지만, 향후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을 고려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기억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두섭, 강남준(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용미(1999). 혼전 단계의 폭력: 1990년대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7(9), 129-140.
- 김용미, 김현옥(2000).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2(3), 183-194.
- 김준호, 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1), 89-110.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8(2), 1-15.
- 안귀여루(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20(4), 679-695.
- 안정만(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이익섭, 이운로(2004). **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세희(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III: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

모형.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 Aizeman, M., & Kelly, G.(1988). The incidence of violence and acquaintance rap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305-311.
- Archer, J.(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rias, I., Samions, L., & O'Leary, K.(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Billingham, R.(1987). Courtship violence: The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ross seven levels of emotional commitment. *Family Relations*, 36, 283-289.
- Cate, R., Henton, J., Koval, J., Christopher, F., & Lloyd, A.(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ohen, S., & Mckay, G.(1984). Social Supports,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253-267.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oshee, V., Bauman, K., & Linder, G.(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2.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549-581.
- Litty, C., Kowalski, R., & Minor, S(1996). Moderating effects of physical

- abus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potential to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0, 305-314.
- Lloyd, S., Koval, J., & Cate, R.(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 Magdol, L., Moffitt, T., Caspi, A., Newman, D., Fagan, J., & Silva, P.(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8-78.
- Makepeace, J.(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olider, C., & Tolman, R.(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4.
- Neufeld, J., McNamara, J., & Ertl, M.(1991).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14(2), 125-137.
-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In Pepler, C. & Rubin, K.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_\_\_\_\_.(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Riggs, D., O'Leary, K., & Breslin, F.(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Romans-Clarkson, S., Walton, V., Herbison, G., & Mullen, P.(1990). Psychiatric morbidity among women in urban and rural New Zealand: *Psycho-social correlates*, 156, 84-91.
- Roscoe, B., & Kelsey, T.(1986).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23(1), 53-59.
- Shepard, M., & Campbell, J.(1992). The abusive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91-305.

- Smith, P., White, J., & Holland, L.(2003).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 J Public Health*, 93(7), 1104-1109.
- Stets, J. E.(1989).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A descrip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4(1), 63-76.
- Stets, J. E., & Henderson, D.(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raus, M.(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Vaux, A.(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Abstract-

## A Study on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Dong Ki, Kim · Eun Hee, Shagong  
Yonsei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 and dating violence i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nd examine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ose relationship and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dating violence.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emale students, students who had had long relationship and who had had experi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 the psychological reported more inflicted violence i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lso, students who had had long relationship and who had had experi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 the psychological reported more inflicted violence in the sexual. And appraisal support of social support has moderate effect partially to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Based upon th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s the following for preventing dating violence; several intervention method based on a period of acquaintance, proper educational program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the psychological school violence and interventions to make the teacher and parents fulfill supportive role.

\* Key words: the experi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social support, moderate effect